

질 수도 있으나 다시 세울 수 있고, 40세가 아니라 70세에도 언제나 유혹에 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삶의 도전이 있고, 그래서 쉬지 않는 싸움이 있으며,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는 순간은 오는 법이 없다.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면 그것은 자기 기만이며, 삶을 학년제 학교로 착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른바 도사연(道士然)한다는 게 바로 그러한 착각에서 온 것이라고 본다.

내가 ‘삶에는 연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30대를 넘어서 부터다. 학생과정을 거치는 사람으로서 유혹받기 쉬운 것은 삶의 어느 토막까지를 연습하는 기간으로 상정하는 버릇이다. 학생시절을 삶의 연습기간으로 사회에서도 관용하고 있고, 그러기에 자신도 언제나 수정하고 반복할 수 있는 연습기간으로 자기 행위에 대해서 관대하기 쉽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 어느 순간도 연습으로 내 삶을 카운트하는 것은 없다. 모두가 바로 나의 삶의 현실이었고 그 순간순간이 모두 점철되어 오늘의 나를 이루었다. 남이 그렇게 규정한다는 사실에 눈을 떴을 때에는 이미 삶의 지각생이 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삶은 바로 역사현실과 직결되어 있다.

4. 역사적 시점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이 말을 그 어떤 잘못이 막중해서 오래오래 기억되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그 뜻은 좀더 깊은 데 있는 것으로 안다. ‘역사의 죄인’이란 말은 ‘역사 앞에 죄인’이라는 뜻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 경우 역사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의 과정이 아니라 어떤 실체성(實體性)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역사는 심판한다’는 말을 쓰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역사를 어떤 정적(靜的)인 원리 따위로 보지 않고 어떤 다 이내막한 의지로 파악한 것이다.

나는 여기서 역사철학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신념처럼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역사는 결코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신념은 나의 삶에 대한 파악과 직결된다. 삶에 연습이 없듯이 역사에는 반복이 없으므로, 그것은 언제나 1회적 사건으로 매듭지어진 것으로 점철되어 하나의 선(線)을 이루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적 현실이라고 할 때 그것은 언제나 유일회성(唯一回性)을 지니고 있다. 말하자면 지금 여기서 되는 일은 특수하며, 그때에 주어진 일을 그 시점(時點)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일의 결과가 이미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아무리 잘못을 후회해도 다시 만회할 기회는 오지 않는다.

L교수가 식민지시대의 잔재가 아직도 그대로 위세를 부린다고 한탄하는 글에서, 오늘날 일본이 우리를 것처럼 깔보는 하지만 우리의 내적 정신자세나 사회·경제 구조가 일제 식민지의 연장 이상이라고 진단하면서 그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해방 후 반민족행위 처벌법과 그 의지를 집행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바로 그때의 역사현실에서 막중한 과제를 담당했음을 말했다. 그리고 이유야 어떻든 그때 반민족·친일주의자들의 처단을 이행하지 못한 것을 오늘 우리 역사의 천추(千秋)의 한처럼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역사적 시점과 그런 일들이 역사적 사건의 일회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바로 그 시대의 주역들이 이유야 무엇이든지 이 역사적 과업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역사의 죄인이며, 역사는 그들을 심판했으며, 그 여파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 역사라는 거울 앞에 당시의 친일분자들의 모습이 추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처단하지 못한 자들의 죄가 오히려 더 무거우며,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방 직후 민족무대에 선 사람들은 역사 앞에서, “나는 친일파가 아니었으니 깨끗하다”고 입방아를 찧을 권리가 없다는 말이다.

오늘 우리는 어떤 역사적 시점에 서 있는가? 해방 직후의(자유당 당시) 역사의 중심과제는 역시 ‘민족’이라고 할 것이다. 그것은 잃었던 땅, 잃었던 주권 등 흩어지고 흐려진 민족의 것을 되찾기 위해 내세운 자명한 과제였다. 그런데 그 과제가 이행되지 않았기에 오늘날도 그 문제는 그대로 있으며, 그것은 우리 앞에 거울이 되어 우리의 정체를 계속 폭로하며 심판한다. 그것은 분단의 긴 비극사를 거쳐서 통일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앞에 놓고 우리를 힐책한다.

5. 민중과 더불어

그러나 이 역사적 현실이 제시하는 지표는 ‘민족’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이 ‘민족의 주체’에로 향하고 있다. 즉 그것은 이 민족사를 짊어지고 다음의 길을 갈 주인은 바로 ‘민중’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의 역사의 실체는 바로 민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구체적으로는 이 역사의 주역이 되어야 할 민중과 더불어 그 앞에 서 있다.

우리의 근대사(어찌 근대사뿐이라만)에는 ‘민족’은 있어도 ‘민중’은 없었다. 이 말은 우리의 근대사는 집권자들이 ‘민족’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민족의 실체인 민중을 탄압하고 고혈을 뺀 역사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결국 민족도 없고 집권자만이 있어왔다. 민족의 실체인 민중에게는 오늘날에 와서도 민족적 중대문제를 결정하는 마당에는 접근할 권리가 없다. 역사적 현실은 우리의 민중만이 우리 민족